

ANOMALIES

The solo exhibition of the Indian-British artist Bharti Kher, <Anomalies> is held from 5 September to 5 October at Kukje Gallery. This exhibition which provides the perspective of broad understanding on the artist's works introduces her various works including selected sculptures and planes among her series. As the well-known artist for large sculpture and 'bindi' which Indian women put on their foreheads, Bharti Kher constantly raises questions about myths and social hierarchy and finds answers on current worl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her abstract imagery and sculptural installation, and unstable forms of human/animal hybrids. She collects objet inherent in dramatic story, curiosity about myths and different reference causing this, and presents these through her works. The main themes of Bharti Kher's works include domesticity, home and femininity. In sculptures such as 'Time Lag (2013)', she alters the meaning of domestic construction elements and conflates the vocabularies of home and femininity by applying bindis on objects. In addition to everyday objects, she uses clothing, especially 'saris' to stand out the absence of female figure. In another series Kher has inverted natural hierarchy through hybrid female figure of half-human/half-animal, and presents the ambiguity of body as beautiful and violent by reinterpreting 'urban goddess' with new perspective that reveals instability and unease of femininity. The abstractly constructed female figures of Bharti Kher that are far beyond concrete definition challenge notions of sexuality, power, love, body and grotesqueness.

인도계의 영국 출신 작가 바티 커의 개인전 〈어나멀리즈〉가 9월 5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관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그녀의 연작들 가운데 엄선된 조각과 평면 작품을 포함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바티 커는 대형 조각 형상과 인도 여성들이 이마에 붙이는 '빈디' 작업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로, 추상적 이미지와 조각적 설치, 불안정한 형태의 인간/동물 혼성체를 묘사한 작품 등을 통해 신화와 사회적인 계급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며 현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이처럼 그녀는 극적인 이야기에 내재된 오브제뿐 아니라 미신에 관한 호기심과 그것이 일으키는 다양한 참조를 수집하며 이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해낸다. 바티 커 작품의 주요 주제로는 가정, 집, 여성성 등이 있는데, '타임 래그 (2013)'와 같은 조각작품에서 그녀는 사물에 빈디를 붙임으로써 가정적인 구성요소의 의미를 변형시키고 집과 여성에 관한 어휘를 뒤섞어 표현했다. 또한, 그녀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사물 외에도 옷, 특히 '사리'를 이용해 전통적인 여성상의 부재가 부각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또 다른 연작에서는 반인반수의 여성상 조각을 통해 자연적 위계를 뒤집으며, 여성성의 불안정성과 불편함을 드러내는 '도시 여신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신체의 모호함을 아름다우면서도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정의를 뛰어넘어 추상적으로 조합된 바티 커의 여성상은 성, 권력, 사랑, 신체 그리고 기괴함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흔든다.





www,kukjegallery,com ***Photo: Keith Park